

서문

By 고든 린지

나는 나의 삶의 중요한 시기에 토마스 웰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가 거의 한 시간 동안 죽은 후에 다시 돌아 오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 바로 이후에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톰의 간증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문서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톰이 55 피트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한 일꾼은 곧 바로 경보를 울렸습니다. 큰 방앗간은 곧 문을 닫고, 어두침침한 연못 어딘가에 떨어졌을 그의 몸을 찾기 위해 75 명의 남자들이 함께 동원되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들은 그의 시신을 찾았고, 밖으로 꺼내어 방앗간의 사무실에 눕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브로키 여사의 감동어린 기도와 하나님께 그를 다시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의 기도의 증인들이며, 그 기도 후에 그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6 일 후 토요일에 그들은 톰이 일하러 다시 방앗간에 나왔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주일 밤에 조그만 학교 건물에서 그들은 (나도 거기서 나중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떨어졌을 때의 부러진 뼈 마디 마디 모두가 즉시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붙는 것은 병원에서도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톰이 증거하는대로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삼촌의 서재에서 읽은 볼테르, 토마스 페인, 그리고 로버트 잉거솔 등의 작품을 읽으며 방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그의 경험은 그에게 불가지론과 불신앙을 주장하는 유명한 철학들의 거짓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톰은 거기에 있었으며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대신에 영원을 거기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 이후 나는 포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존 G. 레이크 목사님의 교회에서 회심하였습니다. 톰은 그가 기적으로 나왔을 때 병원에서 주님께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 년후에 그는 나와 L.D.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틀랜드를 떠났습니다.

오레곤의 놀라운 기적

토마스 웰치



내용

제 1 장

오레곤의 놀라운 기적

제 2 장

토요일 직장으로 돌아오다

제 3 장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제 4 장

내가 죽은 시간 동안 본 것

제 1 장

오레곤의 놀라운 기적

당신이 읽게 될 이 간증은 세세한 모든 것까지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20 세기에 증거하도록 선택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이 하신 일에 측량할 수 없는 빛을 진 자이며, 나의 오직 소망은 그 분께 신실한 것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그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5-8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는 캐나다의 북 알베르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나는 네 형제 중의 맏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 가셔서 내가 11 살 생일날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4 달 후에 어머니가 돌아 가셨고 우리는 고아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였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가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지게 하였으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억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었든지 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모든 지난 것을 기억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서는 결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것과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학교의 선생님이셨으며, 루터교의 목사님으로서 말을 타고 학교를 순회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개척자로서 행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던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루터교회에서 우리의 교육을 위해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는 샘 외삼촌과 줄리아 외숙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외숙모는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나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대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친절과 사랑을 늘 감사하였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움직이셨습니다. 18 세 생일날에 나의 매우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인 핀 브로키와 그의 아내는 캐나다를

떠나 미국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로 이사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러 번 병치레를 하였으므로, 그들은 환경의 변화가 그녀의 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얼마후, 우리는 그들이 갑자기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매일 밤마다 교회 간다는 것이나, 브로키 부인의 병이 기도로 나았다는 것 등, 그 외에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추수 벧단을 모아 타작이 다 끝나고, 나와 한 친구는 포틀랜드로 직접가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많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여러가지 이유로 모든 종교에 대해 비난적이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살기 전까지는 온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나의 인생의 발걸음은 내가 그토록 피하려 하였던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923 년 11 월 24 일, 나의 친구와 나는 캐나다를 떠나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오레곤에 있는 브로키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음과 브로키 부인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번 교회에 갔습니다. 나는 존 지. 레이크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설교자였으며 과거에 남아프리카의 선교사였으며, 세계로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의 메세지와 치유의 능력과 죄와 속박과 병에 대한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브로키 가족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듣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중에 내게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대해 나의 속사람은 죽어 있었습니다. 나의 십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어떤 영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경, 유아 세례에 대한 루터교의 교리 등등에 대해서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는 그와 같이 선택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레이크 목사님은 올라운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그 말은 사실이나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인줄은 결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과거의 영향은 지워 버리기에는 너무나 강력하였습니다. 내가 지우기를 원하여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브로키 가족과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포틀랜드에서 동쪽으로 30 마일 떨어진 랄치 산에 있는 브리들 베일 목재사의 책임 기술자였습니다. 그 회사는

150 명의 남자들을 용역하여 큰 나무들을 증기 톱으로 벌채하고 자르는 곳이었습니다. 브로키 가족은 포틀랜드에 집과 목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4 년 7 월 1 일, 나는 브로키 부인과 함께 기술 조력자로서 취직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월요일에 일어난 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내가 목재사에서 일을 시작한 날이며 오후 3:30 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나무를 베어 브라이들 베일에 있는 콜럼비아 강에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 댐에서 공급받은 물은 방앗간의 보일러의 물과 나무 동치가 있던 연못과 멀리 산 아래로 4 마일의 거리에서 브라이들 베일로 통 나무를 운반할 수로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댐의 버팀 다리는 55 피트 이상의 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버팀 다리로 올라가 걸려서 흐르지 않는 나무들을 바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나는 그 버팀 다리에서 목재 사이로 떨어져 깊이가 10 피트 이상이 되는 연못에 빠졌습니다. 나무를 싣던 기술자가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 30 피트에서 떨어져 먼저 머리를 받고, 계속 나무 목재에서 굴러 떨어져 연못으로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목재사 주위에는 70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문을 닫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나를 본 사람의 말에 의하여 나의 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5 분에서 한 시간 가량 찾았으며, M.J.H 건더슨 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의 증거에 의해 나는 이것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못에서 나의 몸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죽음을 경험하였으며,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여기에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는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도 잃은 시간이나 공백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몸으로 있는 한 시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버팀목 가에서 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차 운전사가 내가 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은 불로 된 대양과 같은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록 21:8 에 기록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의 한 면을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떠나 있는 1 시간 동안 일어나고 보았던 것은 내 인생의 어떤 일보다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타며 소용돌이 치고 푸른 불길로 끓고 있는 불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눈길이 닫는 끝까지 같은 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열 세살 때에 죽은 사람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인 나의 삼촌은 폐결핵으로 내가 13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잇발에 병균이 전염되어 턱의 암으로 죽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알고는 있었으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나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하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엄청나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심판에 대해 보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피하거나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니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나는 거기서 혼자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이곳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겠구나.” 그러나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앞을 지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즉시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는 강하였고 친절하였으며. 동정심이 많은 얼굴을 가졌고, 평안함과 두려움없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크나큰 희망이 나를 붙잡았으며, 나는 나의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 나를 잃어버린 혼란의 심판의 감옥에서 나를 나오게 하실 분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 다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곳을 결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일 그가 나를 보지만 한다면 나를 이곳에서 구해 줄거야.” 그는 나를 지나갔으나 나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지나치기 전에 그의 고개를 돌려 나를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그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수 초안에 나는 나의 몸으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브로키 부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의 생명은 나의 몸 안으로 들어와 눈을 뜨고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불뭉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내가 그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1:9-11 에, “나 요한은...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같은 크 음성을 들으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본 많은 것들은 심판이었으며, 그가 본 것을 계시록 20 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0 절에서 그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지리라.” 그리고 다시 계시록 21:8 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 불못이었으며, 내가 본 것과 같은 것이며, 세대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이 이 불못에 던져지며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은 브로키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오, 하나님, 톰을 데려가지 마세요, 그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 온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후에 앰블런스가 도착하여 포틀랜드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들어 갔습니다.

나는 저녁 6:00 쯤 도착하여 수술실에서 상처를 바늘로 꿰매었습니다. 나는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사들이 많이 없어서 나는 기다려야 했는데, 내게는 아무 통증도 없었고 정신도 맑았습니다. 특별 간호원이 나를 돌보도록 되었습니다. 나는 금요일 오전 11:30 분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4 일 밤낮 동안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의 삶에서 놓여 났으며, 내가 본 것, 불못이나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내게 오신 것, 외삼촌과 학교 친구를 본 것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 온 것등을 성령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였고, 여러번 나는 주님께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성령은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때까지 나의 뒤틀린 생각들의 실타래를 풀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그는 나의 과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 주셨으며, 그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의 모든 조각이 맞추어 질 때까지 나를 도와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와 나를 향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나의 부러진 몸은 매우 뻘뻘하였고, 쓰라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00 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매우 실제로 들렸습니다. 그는 내게, “나는 네가 본 것과 네게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간 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병원에 누워 오른 팔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왔습니다. 나는 그 결단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전 11:30 즈음에, 나는 결단을 하였고, 의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간호원에게 혼자 있게 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주저하였으나, 나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거기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제게 원하는 일이라면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누워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여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기도 같지 않은 말이었으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매우 엄숙한 선서가 있었습니다. 즉시로 따뜻하고 놀라운 감동이 부드러운 바람과 같은 것이 내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나의 머리부터 치기 시작하여 나의 몸을 통해 발까지 내려 갔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즉시로 나왔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옷을 꺼내어 입고는 방을 나와 계단을 세 개씩 날아 거리로 6분만에 나왔습니다. 간호원은 경보를 울리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까지 나는 누가 나를 보고 병원으로 다시 넣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리 전체에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누가 봐도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한명이 병원 근처에서 인쇄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안전한 장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뛰어 들어갈 때에 나의 친구 피터는 별로 놀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피터는 1 차 세계 대전 때에 군인이었으며, 참호 도랑에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령 아래 캐나다 부대에서 복무를 하였으며, 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용감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대화 후에, 그는 차 열쇠를 주며 말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먼저 가게. 나는 버스를 타고 갈테니, 자네는 자네 모습이 어떤지 믿지 못할거야.”

나는 그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피터의 집 안에 들어가니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동이 일어 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그들을 진정을 시키고 피터의 방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위에 깔여 있고, 곳곳을 바늘로 꿰매었습니다. 나는 모든 붕대를 풀고 남은 머리를 빗으려고 하였습니다. 빗이 상처 안으로 들어가 피가 흘렀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낫지 않았다.” 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피터의 면도칼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바늘 자국을 잘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바늘로 꿰맨 곳을 잘라서 빼내었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치유를 받은 것이며 내게 증거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 때부터 이와 같이 낙심을 주려고 오는 모든 부정적 생각을 대적하고 극히 긍정적인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은 여러번 우리의 초자연적인 승리를 도적질하여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나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행동하십시오.

씻고 나서 나는 나의 병실로 왔던 브루어 의사를 보러 시내로 갔습니다. 내가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자 그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너무 놀란 얼굴로, “도대체, 당신 여기서 무엇하고 있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나도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괜찮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선생님, 저는 도망 나왔습니다. 어찌면 그들은 내가 사라진 것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선생님, 주님이 저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내게 가까이 오더니 부러졌던 갈비뼈를 밀어 보고는, “아픈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게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는, “글쎄, 주님이 확실히 당신을 치료하셨군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당신의 부러진 뼈가 완전히 낫기에는 6 주에서 2 달이 걸립니다, 단지 4 일 만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의 실밥은 누가 뽑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실밥을 뽑았는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나를 부르셔서 세상에 가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치료한 의사에게 가서 내게 대하여 물어 본다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에 대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선생님께 와서 저에 대해 물어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는, “글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치료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니까요. 이제 4 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루어 의사에게 가서 물어 보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나의 증거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제 2 장

토요일에 직장으로 돌아가다

나는 금요일 하루를 쉬고, 토요일 아침, 팔머 목재사로 다시 일하러갔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일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후, 나는 그들에게 내게 치유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고 싶은지를 물어보았으며, 주일 밤에 학교 건물에서 만나 내가 본 것과 치유 받은 모든 것들을 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만족해 보였습니다. 주일 밤 8 시에 만나기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주일 밤, 내가 떨어졌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학교 건물로 가까이 가니, 큰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 지고 있었고. 나는 놀라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 보았습니다. 브로키씨가 찬송 한 곡 불렀고 기도를 한 후 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떨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 서있는 동안 나는 생전 처음으로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름과 같이 감쌌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걸어 나올 때에 있었던 그 임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임재는 내가 본 것과 그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기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일어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내가 청중 앞에서 첫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조그만 학교 건물에 있는 교사의 책상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자 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공기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으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사람들이 나의 몸을 연못에서 찾고 있는 동안 내가 본 것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훔의 예언 2 장과 3 장을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밤 이후 성경의 관주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그의 준비의 날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 저리 빨리 달리니...” 그때 나는 내가 성경에 있는 곳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브로키씨가 성경에서 그말씀을 찾은 후에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사역에 대한 인도의 한 징표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분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성령이 세상에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첫번째, 의에 대해서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 복음 16:9-11: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구원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과 잃어버린 세상을 구하는 일을 위해. 그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내게 그때의 사고이후에 두통이나 어떤 후유증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나는 나의 평생동안 두통이 없었으며, 눈이나 귀는 거의 완벽하다. 나는 오늘도 여전히 치유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물론 핀과 마벨 브로키였습니다. 그들은 그때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적에 필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알며, 또한 즉각적인 결과로 보상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 피트의 물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몸을 찾기를 포기하였을 때, 끝까지 나를 찾아준 줄리우스 건더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의 믿음에 대해 보상을 하셨습니다. 건더슨씨와 핀 그리고 마벨 브로키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그들의 증거로 썼으며, 여기에는 그들의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 3 장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핀&마벨 브로키

나는 그날 딸기를 따러 언덕으로 올라 갔으나 비가 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만치서 남편이 급하게 뛰어들어 오더니 나를 불렀습니다. “여보, 톰이 떨어져서 죽었어.”

그때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느낀 것은 지금도 나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는 “톰이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남편은 내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당신을 데리러 왔어.”

나는 남편과 목재소 사무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가는 동안 말없이 계속 기도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로 꼭 차있었고, 탁자 위에 톰이 담요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머리는 피로 뒤덮여 있었고, 맥박이 뛰지 않고, 생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심없이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득하게 차있던 사람들은 나의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남편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하여 나를 데리러 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탁자의 한편으로 가고 남편은 다른 편으로 갔습니다. 성경의 야고보 5:14 과 15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지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나의 남편은 성경에 기록된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나서 말하였습니다, “마벨, 당신이 기도해요.” 나는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은 가슴에 얹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한 청년이 머리에 얹은 내 손을 떼며 말하였습니다, “다쳤던 자리를 보세요!” 그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일으켜주시도록만 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눈꺼풀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에요?”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들은 먼 나라에서 오고 있는것 처럼 한참 떠듬거리며 “내가 힘이 없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더 많은 생명이 그에게로 들어왔으며 그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감독은 톰이 떨어진 즉시 포틀랜드에 구급차를 불렀으므로, 곧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병원의 수술실에서 그의 머리에 있는 상처를 바늘로 많이 꿰매었습니다. 그의 왼편 가슴뼈 일곱개가 부러져 붕대를 감아 놓았습니다. 그 수술은 오래 걸렸으며 우리는 그가 수술실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우리는 통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를 중환자실에 데려 갔을 때 그는 간호원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방앗간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톰에게 먹을 것을 조금 주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책임 기술자였으므로 그날 밤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병원으로 가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내게 오래 있지 말라고 말하며 그는 살 가망이 그렇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톰은 자신의 말이 너무 느리게 나왔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말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말할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나는 잠시동안 죽었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으로 거대한 자석처럼 이끌려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거기에는 나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외삼촌을 보았고, 나와 함께 학교 다녔던 소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다와 같이 거대한 불뭉이 있었으며 거기에 내가 빠질 것만 같았고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한 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오시어서 나를 지나가려 하셨습니다. 나는 “이분이 내게 돌아와 나를 보신다면 그는 나를 구원하실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보셨으며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한 빨리 눈을 떴는데 당신이 보였습니다.

나는 병실을 나와야 했으며, 나중에 그가 보았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불뭉에 대해서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그 불뭉에는 지금 아무도 없으며, 사람들은 감옥과 같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톰을 본 것은 금요일 밤 일한 후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병원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포틀랜드에 있는 저의 언니 집에 있었는데, 그가 더 이상 병원에 있지않으며, 즉시로 나아서 그날 아침 11 시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4 일 동안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우리와 함께 방앗간으로 돌아갔으며, 토요일에 일하러 갔습니다.

주일 밤, 그는 방앗간 가까운데 있는 조그만 학교 건물에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건물이 너무 작았으므로 안으로 들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말할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톰은 그의 약속을 지켜 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여 왔으며, 그 이후로 설교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핀 브로키
마벨 브로키

다음은 오레곤주 포틀랜드 16가 1703번지의 J.H. 건더슨씨의 서명된 진술입니다:

J.H. 건더슨인 나는일을 구하려 팔머 제작소에서 1924년 7월 1일 핀 브로키씨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 반쯤 톱은 떨어졌으며, 나는 이 믿음의 기적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견인차에 타고 있던 한 기술자가 톱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차에서 내려 브로키씨에게 뛰어가 일어난 일을 말하였습니다.

목재소는 문을 닫고 브로키씨와 나와 다른 사람들은 톱을 찾으러 갔으나 그가 10피트 이상이나 되는 깊은 물에 빠졌으며, 그 물은 더러웠으므로 찾기에 매우 어려워 긴 손잡이가 달린 막대기로 그를 낚으려 하였습니다. 얼마후에 다른 사람이 그가 사용하던 막대기를 주어 나는 깊은 곳으로 탐사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가장 바닥에 있을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조금 후에 그의 옷이 걸렸고 우리 손으로 건질 수 있을만큼까지 그의 몸을 끌어 올렸습니다. 그는 죽어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는 뚫개어져 있었고 온 몸에는 피로 덮여 있었습니다.

브로키 부인은 소식을 듣고 목재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톱이 누운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손을 그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므로 생명을 살려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녀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동안 나는 톱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러해동안 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특권에 대해 하나님께 여러번 감사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의 몸을 건져 올리는 동안 적어도 삼십분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있을법한 곳에 대한 표시나 공기 방울이 올라오는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방울은 결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톱을 찾기를 포기한 한 사람이 내게 그의 긴 막대기를 내게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막대기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는데 그의 옷이 걸렸습니다. 그는 거의 가장 깊은 바닥쪽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떨어진

때부터 브로키 부인이 목재소 사무실에서 기도하기까지는 45 분에서 한 시간 가량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분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나는 톰을 수면으로 끌어 올렸으며, 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는 기적의 증인입니다. 나는 그날 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여기에서 말할 수 있게된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건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줄리우스 H. 건더슨

제 5 장

내가 죽은 시간 동안 본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십대나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이 증거를 들을 때 내게 그 불뭇이 성경에 있는지 묻습니다. 최근에 35 명이 모인 젊은이들의 모임에서는 나에게 그 성경 구절을 찾기에 어렵다고 적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에게 들은 적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곳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옥이라는 단어에는 매우 익숙하여 있으나, 불뭇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불뭇을 보았다는 사실과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약속을 주님께 드렸으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불뭇에 대해서와 그 목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읽어야 한다고 느꼈으므로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6:23-“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시록 1:19 에는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본 것을 묘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시록 1:2 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잊혀지지 않게 하기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1 에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교회에 보내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요한이 그가 보았던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하여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19, 20 에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이 잡히고...거짓 서지자도 함께 잡혔으니...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하며, 계시록 21:10 에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서지자도 있어,” 계시록 20:3 에는 사탄이 천년동안 “무저갱”에 잡힐 것과 미혹하기 위하여 다시 풀려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절과 8 절에는: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9 절에는 룯의 시대에 소돔에게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10 절에서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산 채로 이전에 천년동안 이곳에 던져졌으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0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나서 계시록 20:11-13 에서 우리는 백보좌 심판의 장면을 봅니다. 12, 13 절에는 작든지 크든지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4, 15 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6-8 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위대한 희망의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나, 또 다른 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최종 선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며 그것은 다 이루어 집니다. 6, 7 절에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8 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최종선고에는 더 이상의 간청이 없습니다. 로마서 6:23 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7-9: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요한은 “불못”을 보았습니다. 나도 불못을 보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장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성경에서 그것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표현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13:40-43 인것 같습니다: “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Published by CHRIST FOR THE NATIONS, P.O. Box 24910, Dallas, TX 75224

번역: 이명주